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단분절 척추 전이 종양의 예후 인자 분석

영문제목 **The Fate of Single Spinal Metastasis**

발 표 자 김형민

책임저자 장봉순

저 자 김형민, 서상교, 최진만, 이석중, 이춘기, 장봉순

기 관 명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서론 : 전이성 척추 종양은 병적 골절로 인한 통증, 척수 압박으로 인한 마비를 일으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보행능력 및 활동 정도 등의 기능 정도(functional status)를 크게 저하시킨다. 사지(extremities) 에 종양의 병적 골절을 예측하는 Mirel's criteria 는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척추의 종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병변이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더욱 잘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단분절 전이성 척추 종양의 natural history와 관계 인자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척추 전이 종양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자를 찾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전이성 척추 종양은 병적 골절로 인한 통증, 척수 압박으로 인한 마비를 일으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보행능력 및 활동 정도 등의 기능 정도(functional status)를 크게 저하시킨다. 사지(extremities) 에 종양의 병적 골절을 예측하는 Mirel's criteria 는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척추의 종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병변이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더욱 잘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단분절 전이성 척추 종양의 natural history와 관계 인자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척추 전이 종양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자를 찾고자 한다.

결 과 : 2007년1월에서 2008년 사이 MRI 검사상 척추 전이암으로 진단 받은 평균 나이 56.0 세인 79명의 환자(남자 39명 여자 40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방암 21례, 폐암 19례, 위암 5례, 대장직장암 5례, 식도암 4례, 신장암 6례, 간암 8례, 갑상선암 3례, 전립선암 2례, 자궁암 2례 및 기타암이 2례 있었다. MRI 상 척추 전이암이 발견되기 전 악성 종양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은 경피적 생검술을 통해 진단이 확인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왕에 악성종양으로 치료중인 환자들중 MRI 상 척추 전이암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생검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전체 환자의 1년 생존률은 83.6% 였으며, 1년간 척수 압박이 발생한 환자가 14.6%, 병적 골절이 발생한 환자가 22.7% 있었다. 병소의 척추체 후방을 양측으로 침범한 경우 및 척추 정렬의 변화가 있는 경우 척수 압박 및 병적 골절의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통증 발생은 병적 골절과 관련이 있었으나 척수 압박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단분절 척추 종양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후방척추체 침범 여부 및 척추 정렬의 변화여부가 도움이 되는 변수이다.

acknowledgment :

척추종양, 척추전위암, 병적골절, 척수압박